

5명의 아이 입양 진도 장기순·허순애씨 부부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키웁니다”

진도군 고군면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곳과 성이 각기 다른 아이들을 키우는 부부가 있다. 주인공은 장기순, 허순애씨 부부. 그들의 자녀는 원영(가명·16)과 제남(가명·16), 사촌기에 접어든 슬기(가명·15), 현준(가명·12), 오르팔에 장애가 있는 올헤 4살인 막내 은무(가명)까지 모두 다섯 명이다. 장씨 부부의 다섯 자녀는 이들 부부가 ‘배’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가슴’으로 낳았다. 이들 부부는 15년 전, 진도를 제2의 고향으로 삼아 정착할 때부터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딱한 사연을 지닌 아동을 일정한 기간 동안 맡아 키우는 ‘위탁 부모’가 됐다. 어린 시절, 어려웠던 가정환경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 섰던 부모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13년 동안 친자처럼 한 명, 두 명 데려와 키운 것 벌써 5명이나 됐다. 하지만 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장씨의 수입으로 7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살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장씨 가족

의 집에는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텃밭 하나도 없다. 허씨는 “한참 성장기인 아이들에게 고기며 야채를 배불리 먹여주고 싶지만 그렇게 못해 식사 때마다 매번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자녀들이 커가면서 장씨 부부는 고민이 늘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자녀들의 꿈을 키워줄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학원은 커녕 매달 버는 돈으로는 아이들에게 책 한 권 사주는 것도 빠듯하다. 장씨는 “수영선수가 꿈인 첫째 원영이를 수영장에 보내 마음껏 꿈을 펼치게 해주고 싶지만, 형편 상 그럴 수 없어 너무 안타깝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5명의 아이들을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말하는 장씨 부부, 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고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며 정을 쌓은 우리 가정에는 끈끈함이 있다”며 “가족의 사랑 안에서 형제, 남매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남에게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며 환하게 웃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화마 입은 벌교 다문화 가정 집 개축

각계 온정 모아 100일만에 보금자리

화재때문에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보성의 한 다문화 가정에 주민과 학교, 소방본부, 어린이 재단 등이 힘을 모아 집을 마련해 줬다.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소동하)는 11일 보성군 벌교읍에서 재단 등의 후원으로 새로 집을 개축한 A씨 가정의 입주식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은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 4명이 한 가족을 이뤄 단란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점심 후 농사일 때문에 A씨 부부가 집을 나간 사이 빈 집에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나 주거지와 생활용품, 의류 등이 모두 타버렸다. A씨의 가족은 동네 마을회관에 임시거주하며 살다가, 이마지로 여의치 않아 불에 탄 집에 딸린 2평짜리 창고를 개조해 생활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 가운데 아궁이의 불로 난방을 하며 가족은 힘든 겨울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다.

이런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 곳곳에서 도움의 온정이 이어졌다. A씨 자녀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먼저 성금을 모았고, 전남소방본부에서도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보성아산병원, 이랜드복지재단도 A씨 가족 돕기에 나섰다. A씨 가족은 이런 지역사회의 도움을 통해 설을 앞두고 지난 7일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됐다. 불이 난지 100일 만이었다. 이 밖에도 보성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후원 물품을 비롯해 생활비 등을 지원

해주기로 해 A씨 가족은 새해, 새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 재단의 한 관계자는 “작은 도움이 하나로 모치면 큰 힘이 되는 만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전남농협, 설 귀경객에 전남 쌀 홍보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중수) 임직원들이 설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호남고속도로 광주요금소 상행선에서 귀경객에게 홍보용 쌀(500g씩 2000여 포)을 증정하는 등 전남쌀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주민들이 떠낸 월산4동 이야기

주민자치위 마을잡지 펴내...역사·미담·사진 수록

광주 남구 월산4동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책으로 엮여졌다. 월산4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마을잡지 ‘월산4동에 살다’를 펴냈다. 월산4동 주민들과 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마을잡지 편집위원회를 구성, 마을의 역사, 미담, 사진 등을 수집했다. 이 책에는 쓰레기 투기장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한 사례,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한 해대공업사 이야기, 1970년대 뽕밭

교회 앞 ‘뽕뽕 다리’ 등 마을의 숨은 이야기가 고스란히 드러나있다. 마을 발전을 위해 쇠락한 남부시장을 다문화 테마음식거리로 만들고 연날리기 대회를 재현해보자는 주민들의 논의도 생생히 담겨있다. 어린이들이 마을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린 그림과 마을지도도 실렸다. 주민들은 일러스트, 편집, 디자인에도 노력을 기울여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김종민 월산4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이



함께 결실을 본 사례”라며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꿈을 담아낸 잡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고영무 조선대 교수 대한치과기재학회장

고영무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한치과기재학회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2015년 1월까지 2년이다. 1966년 창립된 대한치과기재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학술단체 가운데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치과생체 재료의 개발과 연구를 통해 치과재료의 국산화와 국민의 구강보건 증진과 예방, 치료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최준식 조선대 명예교수 임상약학회 명예회장

최준식 조선대 명예교수(약학)가 한국임상약학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최 명예교수는 1988년 한국임상약학회 창설멤버로 총무이사, 편집위원장, 부회장,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또한 조선대 약학대학에 임상약학 과목을 처음으로 개설하고 2011년 약학대학에 특수대학원인 임상약학대학원을 설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지난 2003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회장을 맡아 한국약학대학의 20년 숙원사업이었던 6년제 학제 개편의 기틀을 마련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KT 사랑의 봉사단, 독거어르신에 떡국 봉사



김진철 KT전남고객본부장을 비롯한 사랑의 봉사단원 30여명은 명절기간 광주 남구 서동에 소재한 ‘사랑의 쉼터’에서 독거 어르신, 이로운 이웃 등 800여명에게 떡국을 대접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박정열기자 halo@kwangju.co.kr

여수출신 주철현 대검 강력부장 법률대상 인권상

여수 출신인 주철현 현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제5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인권부문 수상자에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최근 “입법과 사법, 학술 등의 분야에서 법치민주주의와 법률문화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리더들에게 주는 대한민국 법률대상 인권 부문 시상자로 주철현 대검 강력부장 등 7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철현(51) 강력부장은 사시 25회로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목포지청장, 창원지검장, 법무부 검찰기획관, 인천지검 1차장검사, 광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또 학술부문 법률대상에는 구병석 고려대 교수(아세아공법연구소 이사장), 입법부문 법률대상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박병

석 국회부의장(민주통합당), 사법부문 법률대상에는 조무제 동아대 교수(전 대법관)등이 선정됐다. 사법개혁부문 법률대상에는 박영선 국회법제사법위원장(민주통합당), 해외동포부문 법률대상에는 김영준 뉴욕주 변호사(하버드대 로스쿨 아시아총동맹회장) 등이 뽑혔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다. /윤현석기자 chadod@

동신대 류갑삼 교수 정보처리학회 호남 제주지회장

동신대학교는 컴퓨터학과 류갑삼 교수가 한국정보처리학회 호남 제주지회장으로 취임했다고 최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14년 말까지 2년이다. 1993년 출범한 한국정보처리학회는 국내 정보통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다. 국내외 7개 지회를 갖추고 있으며 1만 5000여 명의 회원이 연구와 학술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정보처리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자문기구인 학술진흥정책자문위원회의 평가 결과 전국 5634개 학술지 가운데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 학술지로 인정받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학측

▲김중순씨 차남 김명준군 김진구(상일여고 교장)·김형남(전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씨 자녀 지승양=16일(토) 오후 3시 홀리데이인호텔 3층 컨벤션홀.

동창동문회

▲복성중 제13회 동창회(회장 김성극) 월례회=13일(수) 오후 6시 진도 회관 062-234-7892.
▲복성중 제16회 동창회(회장 최원섭) 월례회=18일(월) 오후 7시 수림 식당 062-223-0028.

종친회

▲전주리씨 광주·전남 지원 이화회 2월 월례회의가(회장 이승봉)=12일(화) 오후 6시 도지원 회의실3층 062-225-5636, 5631.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중고컴퓨터 기증하실 분=광주·전남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중고 PC를 기증하실 개인, 단체, 기관 환영. (사)장애인먼저실천 광주·전남운동본부 062-511-0030.
▲무로자선봉사는 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발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인권선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 (1577-5364).
▲습관성도박(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오락 등)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프르네 학습중진권선터 저소득층자녀 무료상담=학교부적응, 성적 부진, 성격저하, 교우관계, 정서장애, 게임중독. 010-6392-7137.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

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 서비스한다.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모집

▲광주노인지도지대학 제27기생=심신이 건강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남녀(선착순 60명), 모집기간은 28일(목)까지, 수업시간은 매주 수요일(2시간) 062-652-7374.
▲동구자원봉사센터 봉사자=이미용봉사·풍선아트·도서관리·각종 프로그램 진행 가능자 062-228-1365.
▲여름방학 자원봉사프로그램 참가자=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참가자, 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학습 및 활동, 초등 해로 인해 긴급일만시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

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조기축구 회원=운동으로 신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하실분 모집. 문화초등학교 오전 6시~7시 011-641-0741(송철동)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참가자=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활동(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축협산 지킴이 회원=장성 축협산을 공유하고 편백의 숲을 지키실 40~50대 회원 011-646-3577.
▲광주 장애인 문화협회=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010-2727-1282.
▲수침초교 아구부 2·3·4학년=전국소년체전 광주 대표선발 010-6634-5300.
▲힐링 타이마로마 회원=친구·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휴식공간 상무지구 종은빌딩 4층 062-372-2023.

▲요양보호사 무료교육생=여성이신 분을 무료교육, 광주·전남 요양보호사교육원(전남여고 건너편) 062-222-2757, 0102.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 체험·홍보, 손발맞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

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부음
▲이용희씨 별세 대승·대현·속향씨 부친상=발인 10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빚니다 弔

| | |
|--|---|
| 故남수 (남/84세) 子/자: 남순호/경리, 명수 女/부: 남영자/오양구 회숙/시흥대 명예/김춘호, 차영/이기영, 영애 | 故최문기 (남/83세) 子/자: 최정신/의생명공학연구소장 女/부: 최금옥/인민대, 김숙/김대, 김자/이원배 명예/한양대, 명자/김원희, 미영/임동민 |
| • 호실: 201호 • 장지: 임실호곡원 | • 발인: 2월 13일 • 연락처: 227-4381 |
| 故양순자 (남/86세) 子/자: 최창수/경리, 창원/경리, 창희/경리 女/부: 최수민/인민대, 영애/이원배, 정인/김정호 | 故박점순 (여/94세) 子/자: 박순주/경리, 동주/경리 女/부: 박순자/명지/영동진, 명숙 |
| • 호실: 401호 • 장지: 망월동 | • 발인: 2월 13일 • 연락처: 227-4383 |
| 故서종민 (남/55세) 未亡人: 김명희, 구·사무원, 성영: 서수정 | |
|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 |

문의 (062)227-4000